



2026년 06월 23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6월 22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94,2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2,3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4,480원

통신서비스 7월 투자 전략

가격 메리트 보단 재료 보유 여부가 중요한 시점

7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재료 보유한 업체 중심의 종목 선정 추천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7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2분기 프리뷰 시즌을 맞이해서 KT를 제외한 SKT/LGU+의 2026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QoQ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AI RAN 도입이 이슈화되면서 장기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요금 인하 이슈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강세장이므로 단순히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보다는 재료 보유한 종목 위주로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AI RAN이 통신사에 미칠 파장이 중요한 시점,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아

7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통신 3사 2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 돌입, 2) 미국 AWS 3 밴드 주파수 경매 결과 발표, 3)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4) 국내 AI RAN 도입 및 5G/6G 신규 주파수 공급 로드맵 검토 작업 착수, 5)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징금 발표 등이 아마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호전에 따른 주주 환원 증대 움직임, AI RAN 도입이 요금제 개편에 미칠 파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7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SKT의 경우 지난해 이미 1,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회계적으로 인식한 상태인데다가 KT의 관련 과징금이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7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Multiple 차별화 지속될 전망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7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제시하며, 7월엔 SKT와 더불어 LGU+도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s로 제시한다. 프리뷰 시즌을 맞이하여 LGU+/SKT 2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며, SKT는 AI 국책 사업자 및 AI RAN 투자 본격화, LGU+는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가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순 기대 배당 수익률 비교보다는 이익/DPS 성장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수익률/Multiple 비교가 타당해 보인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7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및 배당 전망 밝고 아직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네트워크 진화 이벤트 및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배당수익률이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며, 3) 2027년도엔 5G SA 전환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예상되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 본질적으로 2027년 하반기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차세대 서비스 개시기대감으로 2026년 Multiple 확장 국면이 미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7월)	투자의견 (6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DPS 성장 가능성 감안 시 통신 3사 배당수익률 높은 상황 5G SA 도입 이후 통신사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망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2) 7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단기 실적 양호/AI RAN 기대감 상승 전망

7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2분기 실적 전망 밝고 AI RAN 활성화로 요금제 개편 기대감 높아질 것이기 때문

2026년 7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2분기 프리뷰 시즌을 맞이해서 KT를 제외한 SKT/LGU+의 2026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QoQ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AI RAN 도입이 이슈화되면서 장기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요금 인하 이슈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프리뷰 시즌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내 통신 3사 2026년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분기비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전년동기비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건비 및 제반 경비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 역시 정체 양상이라 전체적으로 비용 안정화에 따른 이익 성장 기초가 이어질 것이라 판단이다. 다만 KT의 경우엔 비용측면에서 SKT/LGU+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러운 매수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최근 미국/국내를 중심으로 AI RAN이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도 통신서비스 업종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젠슨황 국내 방문을 계기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AI RAN 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행보에는 그 동안 데이터 센터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이동전화 기지국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엔비디아는 노키아 지분 취득을 통해 사업 연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는 에릭슨, 삼성, 인텔 진영의 반격도 무서운 상황이다. 어떠한 사업자가 점유율을 높일 것인가도 관심사이지만 AI RAN이 통신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점차 AI 활성화를 위한 기지국, RAN For AI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왜 5G SA/6G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냐를 묻는다면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5G SA/6G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AI RAN이 확대되며 피지컬 AI를 완성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사 요금제 개편 발미 제공과 더불어 장기 매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예상보다 규제 상황도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다. LTE/5G 통합 요금제 출시가 사실상의 요금 인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징금 역시 당초 우려보다는 적게 부과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엔 아무래도 통신사 망 투자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미 전세계 각국 규제 기관이 5G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도 내놓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곧 새로운 5G 요금제를 논의할 것이며 CAPEX 증대를 발미로 요금 인상이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7월)	투자 매력도 (6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뷰 시즌 맞이하여 SKT/LGU+ 2분기 실적 양호할 전망 • LGU+ 8~9월 자사주 매입/소각 로드맵 발표 예상 • 낮은 기저로 SKT/LGU+ 2026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미국 5G 주파수 경매 6/2일 실시, 5G SA 시대 본격 개막 • AI RAN 도입 본격화, 5G SA/6G 투자 동인 될 전망 • LTE/5G 통합 요금제 출시, 사실상 요금 규제 일단락 • 중국 통신사 토큰 기반 AI 패키지 요금제 출시, AI 과금화 추진 • AI가 통신사 요금제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5G 요금제 논의 예상 • 5G SA/6G 투자 활성화 위해 통신사 요금제 개편 시도 예상 • 피지컬 AI 활성화 위해 AI RAN 구축 전망, 5G SA 기지국 변화 예상 • 국내 5G 신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대두, 3분기 이슈 부상할 듯 • SKT 배당 조기 정상화, 4분기 이후 비과세 배당 전망 • SKT 주가 상승에도 5G SA 시대 돌입 감안 시 Valuation 부담 낮음 • 통신사 장기 DPS 성장성 감안 시 기대배당수익률 낮지 않음 •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SKT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 소송 진행, KT 과징금 적을 듯 • 4차산업 패권 경쟁 이슈로 신정권 출범에도 규제 리스크 낮아 • 제 4 이동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3) 6월 통신업종 수익률은 KOSPI를 하회, SKT 중심의 등락 이어지는 상황

최근 1/3개월간 통신주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 SKT 위주의 등락 지속되는 양상

6월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반도체 위주의 주가 상승으로 수급 쓸림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

종목별로는 SKT가 6월 초순 급등을 나타냈지만 중순 이후 상승 분을 대부분 반납한 반면 LGU+의 경우엔 오히려 6월 중순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 초반 SKT 주가 상승은 AI RAN 도입 및 5G SA 상용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LGU+의 경우엔 상반기 호실적에 따른 주주환원증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도표 3. 2026년 6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4.1)	4.3	(21.8)	(53.8)

주: 지수는 6/19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6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2.9)	21.4	(23.0)	(36.2)
KT	(5.2)	(10.1)	(19.8)	(68.8)
LG유플러스	(5.5)	(5.8)	(22.0)	(63.6)

주: 주가는 6/19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4) 7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수준 예상, AI RAN/자사주에 관심 높일 시점

7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KOSPI 수준이 될 듯, SKT는 피지컬 AI, LGU+는 자사주 매입이 추가 올릴 것

2026년 3~4월과 달리 2026년 5~6월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이 시장대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프리뷰가 시작될 7월엔 시장수익률 수준의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 코스피가 단기 급등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아마도 양호한 상반기 실적과 이에 따른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 AI RAN 구축 시작에 따른 장기 요금제 개편 기대감 및 규제 상황 호전 가능성이 통신주 상승을 이끌 것이라 판단이다.

7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통신 3사 2분기 실적 프리뷰 시즌 돌입, 2) 미국 AWS 3 밴드 주파수 경매 결과 발표, 3)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4) 국내 AI RAN 도입 및 5G/6G 신규 주파수 공급 로드맵 검토 작업 착수, 5) 개인정보유출 관련 과징금 발표 등이 아마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뉴스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호전에 따른 주주 환원 증대 움직임, AI RAN 도입이 요금제 개편에 미칠 파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 뉴스가 더 많을 전망이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SKT의 경우 지난해 이미 1,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회계적으로 인식한 상태인데다가 KT의 관련 과징금이 투자자들의 예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다.

반면 AI RAN 도입 및 5G SA 투자 개시,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및 요금제 개편 논의 등은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지만 피지컬 AI는 장기 통신산업 육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호한 2분기 실적 프리뷰도 패시브 자금 유입 및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컨센서스를 감안할 때 SKT와 LGU+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LGU+는 우수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증액된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전망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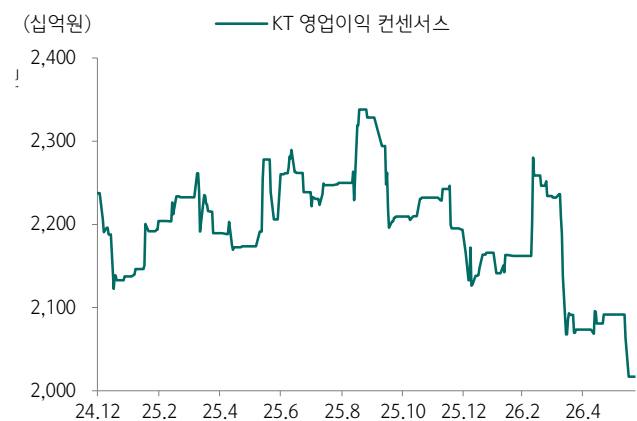
도표 5.7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7월 미국에 이어 국내에도 AI RAN 이슈 될 것, 2분기 실적 중 아 주주 환원 기대감 커질 전망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LGU+/SKT 우수한 실적 발표 예상, 프리뷰 시즌 컨센서스 높아질 것 • 개보워 개인정보유출관련 과징금 부과 예상, 하지만 예상보다 규모 적을 듯 • 국내 5G/6G 신규 주파수 경매 로드 맵 절차 돌입, AI RAN 구축 압력 커지는 양상 • LTE/5G 요금제 통합, 요금 인하 정책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 • 미국 5G 주파수 경매 진행 중, 곧 5G SA 도입 플랜 발표할 듯 • 중국 토큰 기반 AI 요금제 출시, AI 과금제 시도 본격화 • SKT/LGU+ 5G SA 연내 상용화 예정 언급, 하반기 이후 요금제 개편 논의 예상 • SKT 1분기 DPS 830원 지급, 2024년 수준의 영업이익/배당금 지급 전망 •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국내도 5G SA로 전환 예상 •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급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비용 통제로 이익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숙기 후반 모습 연출 중 • 국내 사업자의 경우 미국/중국과 달리 5G SA 활성화, AI RAN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 •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본업 복귀, 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예상 • LGU+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2026년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일시적 감소 예상 • SKT를 제외한 KT/LGU+ 2026년 배당금 총액 정체 예상 •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 2026년 이익 증가/DPS 성장 흐름 전망, AI RAN/5G SA 도입 기대감 팽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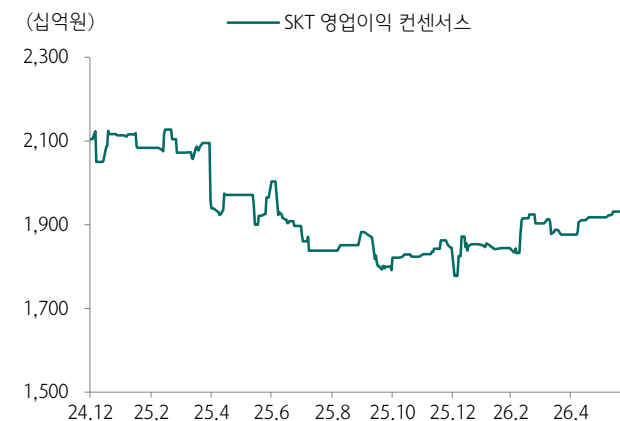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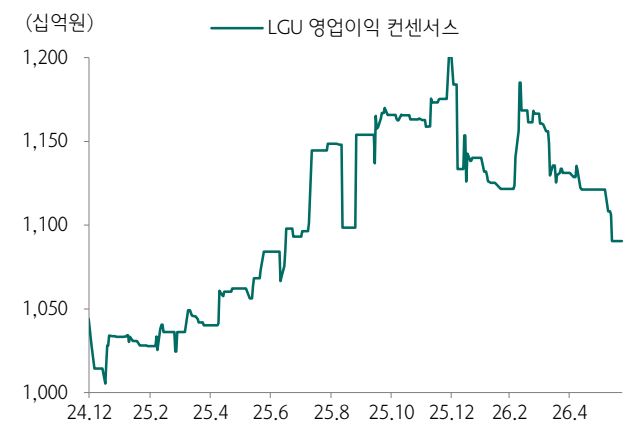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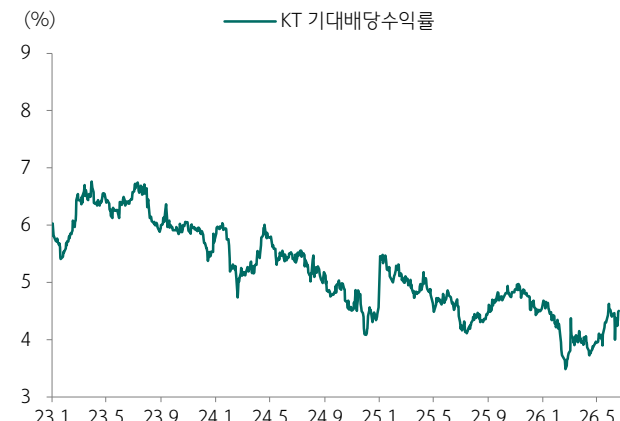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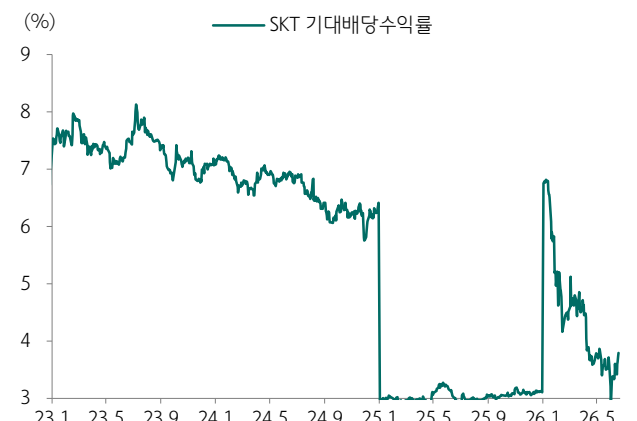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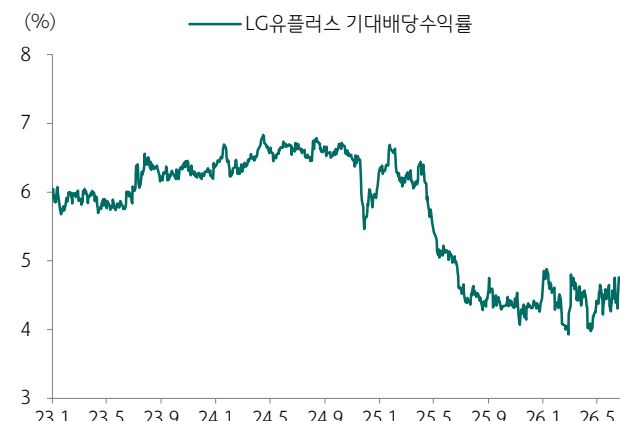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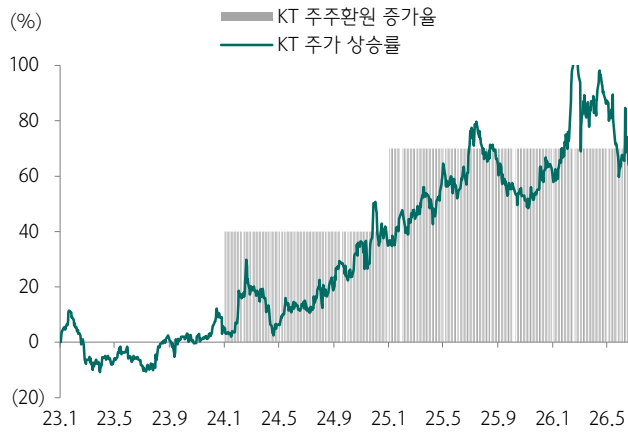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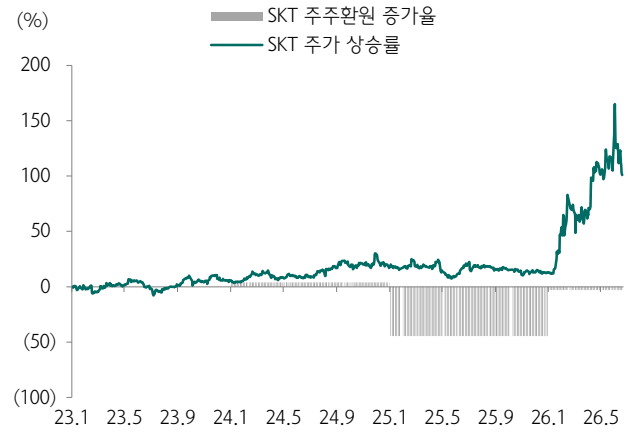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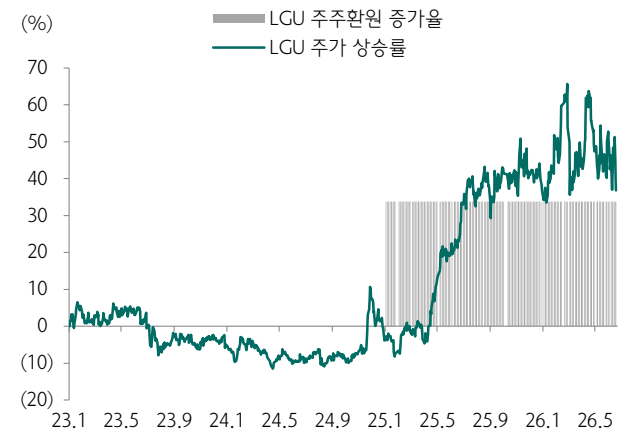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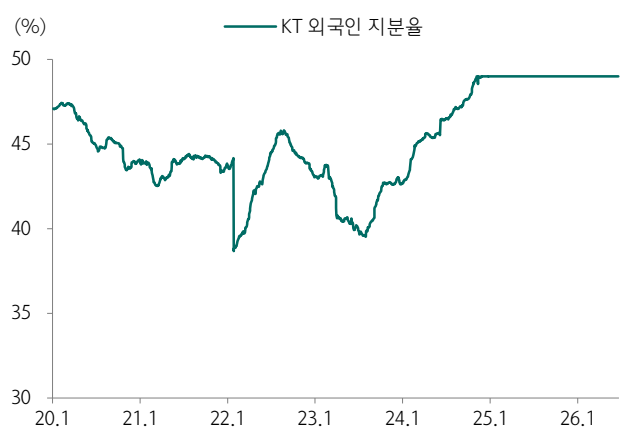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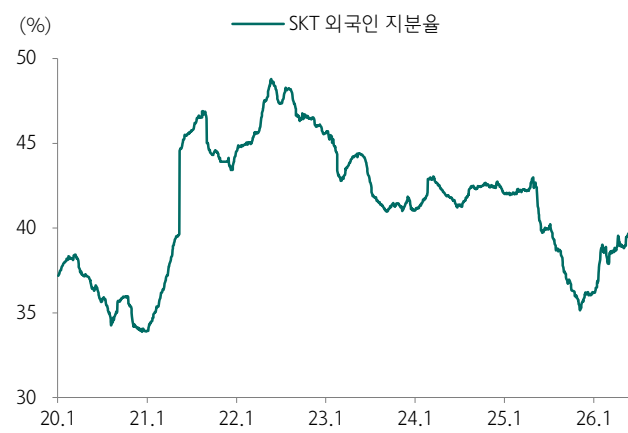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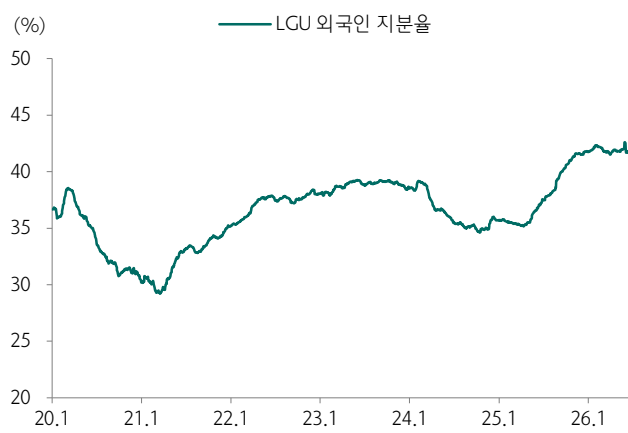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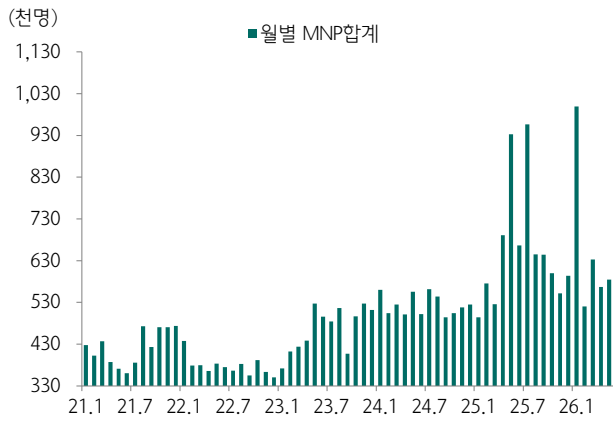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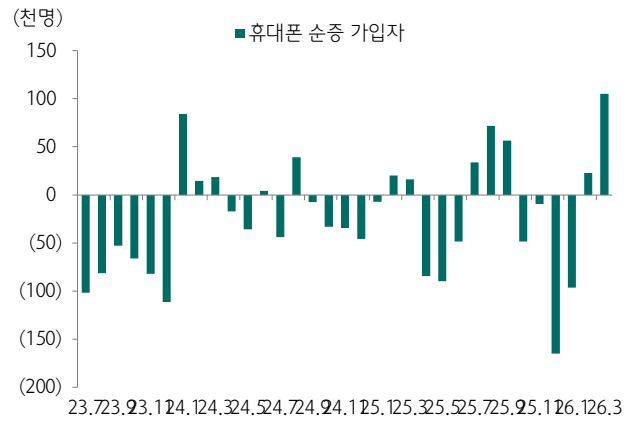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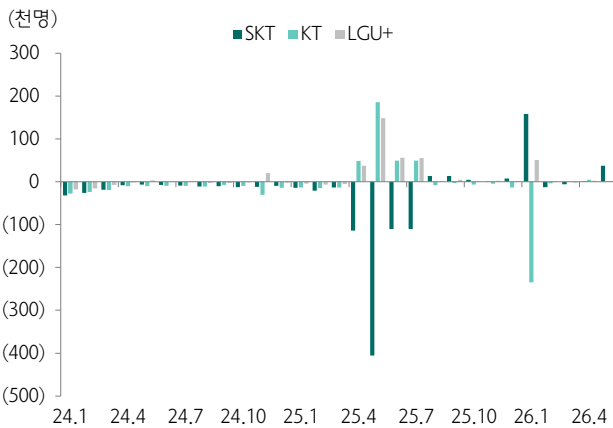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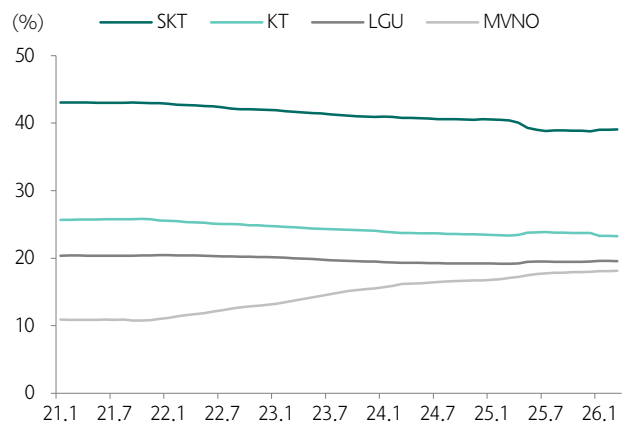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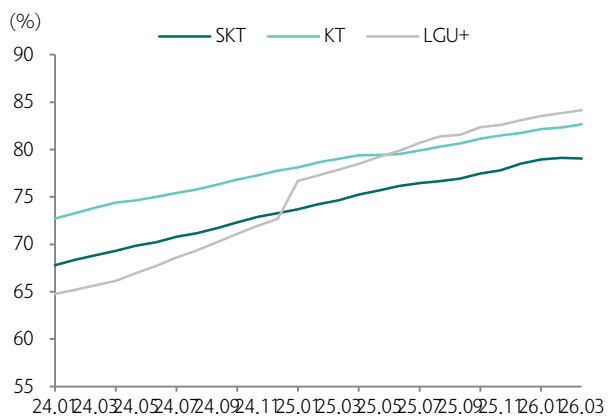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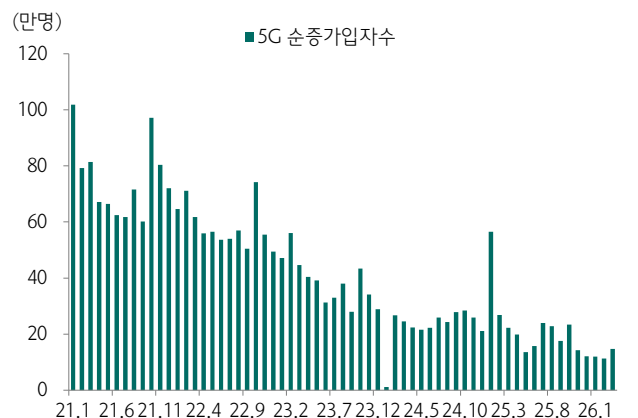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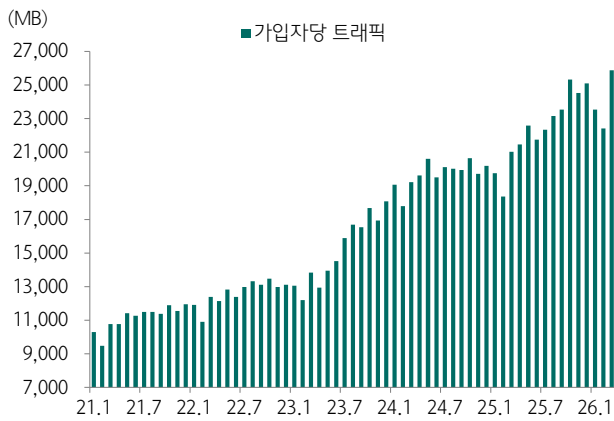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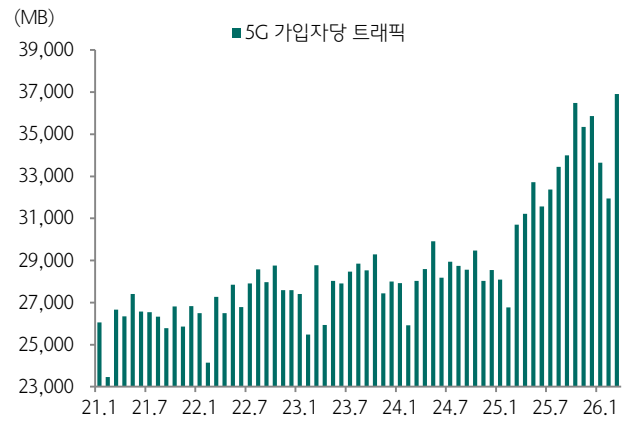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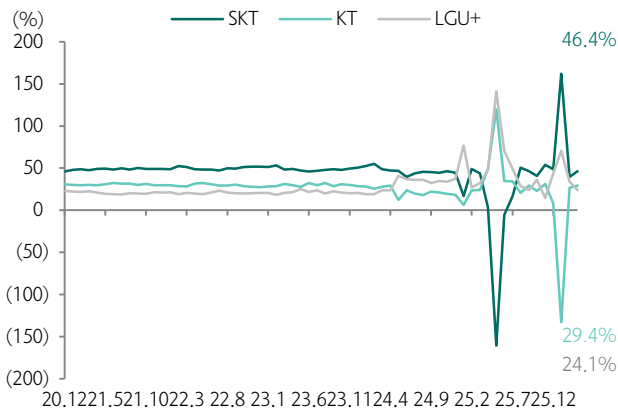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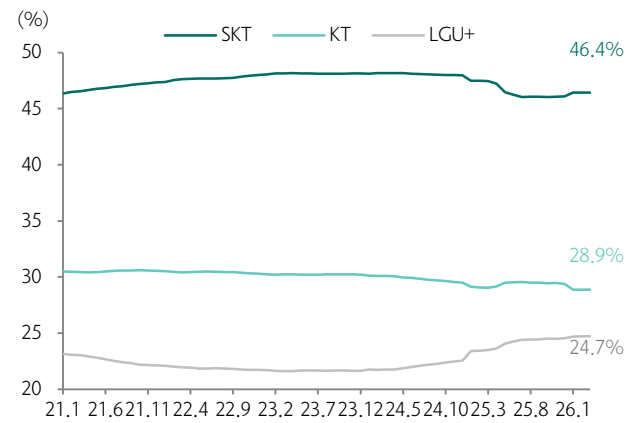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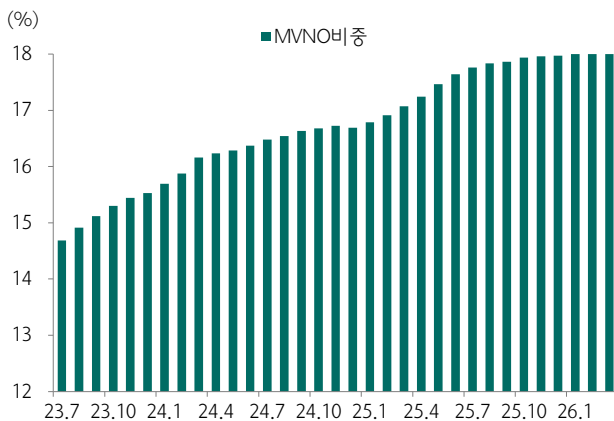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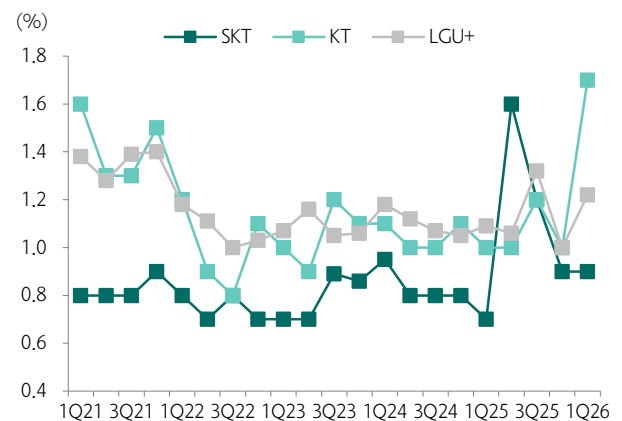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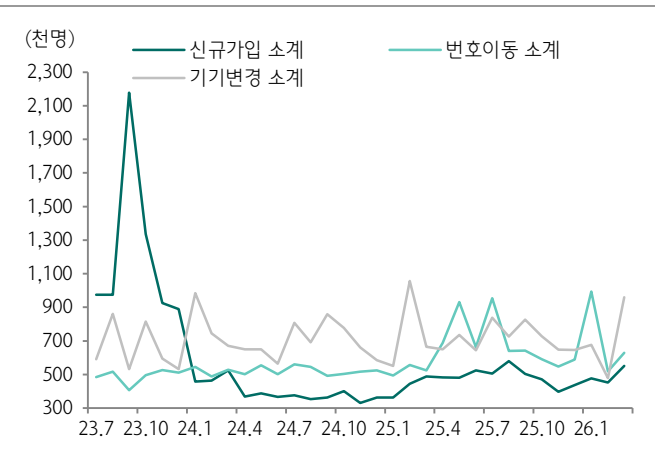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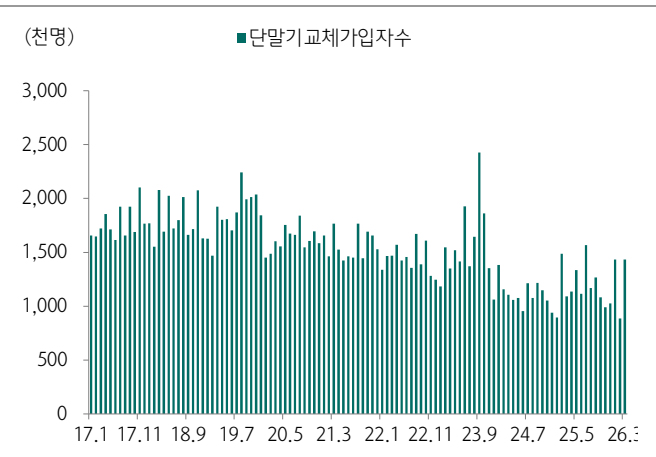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7월 투자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AI 국책 사업자 선정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DPS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란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AI RAN 활성화와 더불어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적으로 해킹 관련 손실 2025년 전액 반영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현금흐름 개선,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가입자 감소 지속, M/S 하락 양상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통제로 본사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적은 상황 낮은 PBR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효과 미흡,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전환 예상 자사주 배당 전환 당분간 어려울 것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L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감소 예상 2026년 총 배당금 규모 정체 예상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이익 급증, DPS 정상화 가능성, AI RAN 대표주자임을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7월 매력도는 SKT=LGU+>KT 순, 단기 호재 있는 SKT와 LGU+를 추천

7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SKT와 더불어 LGU+를 Top Picks로 제시

단기적으로는 7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하고 7월엔 SKT와 더불어 LGU+도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s로 제시한다. 프리뷰 시즌을 맞이하여 LGU+/SKT 2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며, SKT는 AI 국책 사업자 및 AI RAN 투자 본격화, LGU+는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가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KT는 12개월 Top Pick을 유지하는 가운데 7월 단기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2분기 실적이 표면상, 내용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AI RAN 투자와 새로운 5G 요금제 출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AI 국책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AI RAN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면서 피지컬 AI 관련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피지컬 AI 육성 목적으로 새로운 5G 요금제가 SKT 주도로 규제 기관과 논의될 것인데 무선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 역시 가점 요인이 될 전망이다.

LGU+의 경우엔 2분기 실적 시즌 단기 호재 출현 가능성이 높으니 15% 내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7월 트레이딩 할 것을 추천한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실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는데 올해는 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U+ 자사주 소각 규모는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 규모로 확대가 전망되며 2분기 실적 시즌 장기 주주 환원 규모 증대 기대감이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KT의 경우엔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외하면 특별한 주가 상승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라 단기보단 중/장기 매수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특히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천억원 중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저점 매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LGU+/SKT와 달리 비용 흐름이 양호하지 못한 관계로 올해 본사 순이익이 1조원 내외에 그칠 경우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배당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5년 초 당시 기대와는 달리 KT는 2026년 이후 인건비가 재차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제반 경비 전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다수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적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7월에도 투자자들을 유인할 마땅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이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4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AI RAN 관련 수혜주
KT	매수	76,000원	• 부동산 자회사 및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편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기록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이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7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6/19)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94,900원	90,000~140,000원	17.7	1.5	• 올해 DPS 정상화 예상, 국내 대표 양자암호+국책 AI 수혜주
1	LGU+	14,710원	14,000~20,000원	8.0	0.7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3	KT	53,300원	50,000~70,000원	9.5	0.7	• 비용 문제 재부상, 2027년 배당 정체 우려 커질 듯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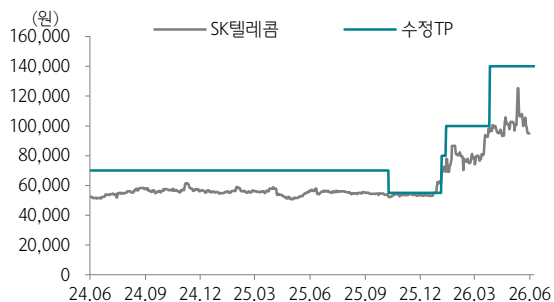
도표 35. 7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7월)	순위(6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이익 성장/현금흐름 개선으로 2026년 초기 배당 정상화 전망
LGU+	1	2	▲1	• 2분기 어닝 시즌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 예상, 장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것
KT	3	3	-	• 비용 문제 부각, DPS/이익 전망 어두워 탄력적 주가 상승 어려울 듯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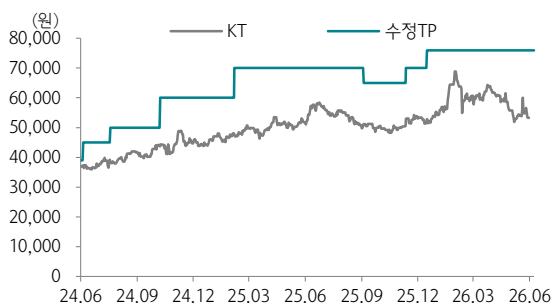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7	BUY	140,000		
26.2.3	BUY	100,000	-19.60%	-1.9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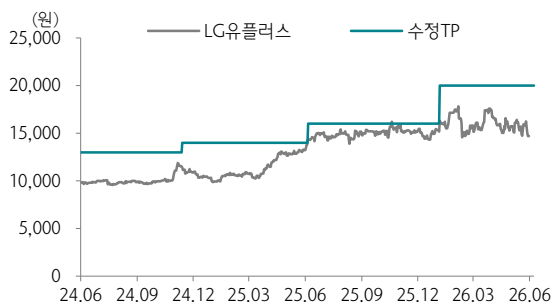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6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30%	2.70%	0.00%	100%

* 기준일: 2026년 06월 20일